

2026년 9월 22일

Hana FX Daily Letter

글로벌 긴축 사이클, 그리고 달러의 향방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중등 긴장 완화 기대 및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하락**
daily range 예상: 1,368~1,380원

■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재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음.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된 점은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연준 인사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환율 낙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또한, 수입업체 결제수요를 비롯한 달러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하단 지지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금일 달러/원 환율은 1,370원대 초중반에서 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전일 동향** : 21일 달러/원 환율은 전거래일대비 11.0원 내린 1,374.5원 마감. 장 초반, 엔화 개입 경계감에 강달러 제한되었으나,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달러 매수세가 유입되며 1,380원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등락. 이후 고점 매도물량이 출회되면서 1,381.4원으로 하락 마감. 이어진 야간장에서는 미-이란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 힘입어 1,370원대 초반까지 낙폭을 키운 채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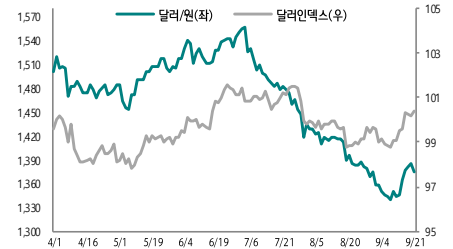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지만, 지역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진 영향에 달러는 강세로 전환
- **(유로-달러)** 독일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유로화는 약세 압력을 받음
- **(달러-엔)** 일본 금융시장이 실버위크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연준 추가 긴축 전망 속에 엔화는 재차 약세를 나타냄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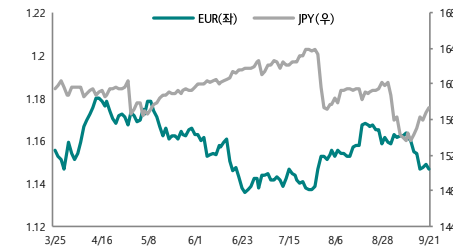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긴축 기조가 한층 강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연준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대응을 위해 약 3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ECB와 BOJ도 기존 긴축 기조 속에서 추가 인상에 나섰음. 현재 주요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제히 긴축에 나선 상황임. 특히 BOJ의 경우, 대내 물가 상방 압력 대응 외에도 엔화 약세 제어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상에 속도를 낸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 긴축 사이클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인상 여부 및 시점으로 향하고 있음. 주요국 모두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에 동참하고 있으나, 국가별 차별화된 경기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부각될 소지가 커 보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가 긴축에 여유가 있는 반면, 여타 국가들은 누적된 고금리 부담과 경기 둔화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 결과적으로 이는 글로벌 강달러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화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387.0	1,387.9	1,370.0	1,374.4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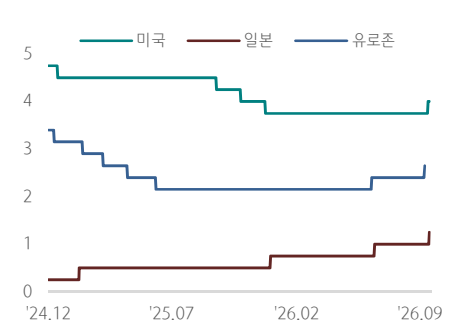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464	157.35	6.6927
전일대비	-0.0022	+0.49	-0.0027
재정환율	1,575.20	873.19	205.29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21:15	미국 ADP 고용 증감		16.25K
23:05	월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23:20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설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